"발표법문주제 다양하고 신선"

조계사 청년회 · 본사 설법대회 공동 개최

최우수상 황상훈: '선,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의 주춧돌'
우수상 이규호: '불교의 실천론'
유준열: '과학과 종교'
장려상 김영만: '포교를 위한 사회전반의 분위기 조성'

◇3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청년불자들의 설법대회. 유준열 씨가 '과학과 종교'를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3천년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의 길을 떠나라고 설하셨습니다. 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법을 설하라고 전도 선언을 했습니다."

3월 23일 설법대회가 열리고 있는 조계사 대웅전. 첫번째 법사로 나온 금강부 김영만 씨가 '포교를 위한 사회전반의 분위기 조성'을 주제로 설법하고 있다. 1백여명의 청중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김씨의 말에 몰두한다. 하지만 첫 번째 순서라 긴장해서인지 말의 속도가 빨라 내용 전달이 잘 되질 않는다. 그래도 설법 주제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애써 강조하기 위해 손짓까지 동원하며 혼신의 힘을 다한다. 본사와 조계사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포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설법대회)' 행사에는 조계사 청년회원 총 8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특히 이번 설법대회는 '포교를 위한 분위기 조성', '과학과 종교', '찬불가에 대해', '머피의 법칙과 12연기' 등 청년불자들답게 법문 주제가 다채롭고 신선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사자후상)은 '선,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의 주춧돌'을 주제로 설법한 황상훈씨가 차지했다. 또 우수상(법륜상)은 '불교의 실천론'을 법문한 이규호씨, 우수상(여시아문상)은 '과학과 종교'의 유준열씨, 장려상(감로상)은 '포교를 위한 사회전반의 분위기 조성'의 김영만씨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최우수상을 차지한 황상훈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내용은 물론 강의식으로 차분하게 법문해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득력 있는 법문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덕혜스님(정법사 주지)은 "설법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 전달력이 더 중요하다"며 "신행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체험한 부처님 가르침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설법은 포교에 대한 자신감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우선 설법 할 때에는 그날의 청중 숫자에 따라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고 손과 몸 동작을 적절히 사용해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법이 끝나기전에는 마지막으로 설법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 핵심사항을 청중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법 요령을 덧붙여 조언했다.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도 "앞으로 청년불자들의 적극적인 포교 능력 배양을 위해서라도 설법대회를 정례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담당=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禪의 가치 알리고 싶었어요"

설법대회 최우수상 수상 황상훈 씨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 뜻으로 알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종립대인 동국대를 다닌 덕분에 불교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번 설법 주제 역시 학부때 교양과목으로 배운 동양 철학과 불교학이 밑거름 역할을 했습니다."

3월 23일 열린 설법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황상훈씨(동국대 대학원 반도체 전공)는 이렇게 피력했다. '선(禪),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의 주춧돌'을 주제로 설법한 황씨는 특히 내용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 청년회에 가입해 신행활동을 해 왔다는 황씨는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동양사상, 특히 불교사상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대안을 찾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대사회에서 선이 차지하는 가치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며 "〈육조단경〉에서 설하는 선(禪)은 서구문명의 합리성과 과학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뛰어넘는 동양사상의 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예로 들었다"고 이번 법문을 요약 설명했다.

1주일에 한번씩 있는 종교행사를 통해 힘든 군생활을 이겨보기 위해 마음을 낸 것이 불교를 믿게 된 계기였다는 황씨는 대학시절부터 꾸준히 불교공부를 해왔다고 한다.

불교 이래서 좋다

송성준 주니엔터테인먼트 대표

"불법 그늘속 항상 자신감"

가수나 탤런트와 같이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매니저 일을 하다보면 그들과 같이 탈선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겉으로는 화려한 직업이지만 대중들의 인기가 식으면 주체하기 힘든 허탈감에 사로잡혀 한 순간에 무너지기 쉬운게 대중연예인들이기에 항상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함께 생활하는 매니저들도 자연히 그들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런 유혹과 위기가 닥칠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곤 한다. 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의 무게중심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가 좋다. 내 자신을 낮추고 타인들에게 보시행을 펼치다보면 그 모든 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도 사회생활을 하며 새삼 깨달았다.

대학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사찰에 나가기 시작한 나는 설악산 봉정암 등 적멸보궁에 많이 올라가 기도하면 모든 '업(業)'이 소멸된다는 지도법사 스님의 말씀에 4번씩이나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 기도할 정도로 열심히 정진해 왔다. 이런 기도덕분인지 아침마다 집을 나설때면 누구를 만나든 조그만 업이라도 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특히 나의 조그만 행동과 말실수가 내가 맡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가는 직업이다보니 이런 마음가짐은 일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평소부터 겸양의 습관이나 행동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흐트러지거나 유혹이 따를때마다 내 자신을 절제와 겸양의 미덕을 갖출수 있게 채찍질 해줄 수 있는 불법의 그늘속에 살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자신감이 넘친다.

담배를 끊읍시다

흡연과 여성건강

자궁외 임신율 비흡연 여성의 2.2배

여성이 흡연을 하면 임신과 출산에도 문제가 있으며, 저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쉽다.

1. 수정 능력

흡연은 여성의 수정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 중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피임약을 중단한 후에도 불임일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나 된다. 또한 흡연 여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자궁외 임신이 2.2배나 높게 나타났다.

2. 임신과 출산

1980년 미국 Surgeon General Report에 의하면 흡연하는 여성의 유산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1.7배 높으며 주산기 사망도 2.16배나 높다고 한다. 여기서 주산기라 함은 주로 임신 29주에서 출생 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흡연은 태반 박리, 전치태반, 임신 중 자궁출혈, 조기 양수파열 등의 위험을 야기 시킨다.

3.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 약화

흡연 여성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병, 만성 기관지염 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동맥 경화, 심장병, 중풍, 폐암에 걸릴 확률 또한 남성보다 크다. 여성 흡연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숨질 위험은 남성 흡연자의 2배, 심장마비, 중풍 등 혈관성 질환으로 숨질 위험은 1.5배 가까이 높다.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새내기 불교동호회

불교문화예술연구회

불교문화유적 답사 · 예술연구 목적

如是我聞

경전공부 · 시와 음악 · 불교정보실 운영

△불교문화예술연구회(http://www.freechal.com/shacamuni)-불교문화예술연구회는 불교문화답사를 하고 불교예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2002년 3월 24일 개설

△불광사 학생법회(http://www.freechal.com/bulkwangstudent)-불광사 학생법회 홈페이지로 신달과 목련이 꾸미고 있는 곳이다. 3월 24일 개설

△대각불교청년회(http://www.freechal.com/daygac)-부산대각사 불교청년회 모임의 장. 3월 24일 개설

△수국사 아기코끼리(http://cafe.daum.net/suguksachildren)-수국사 어린이회 선생님과 학생들이 꾸며가는 아기자기한 곳. 3월 23일 개설

△如是我聞(http://cafe.daum.net/zerospace)-누구나 쉬어가는 공간…. 편안한 의자가 되어 드리겠다는 카페 주인의 글이 방문자를 반기는 곳. 경전공부, 토론마당, 시와 음악, 불교 정보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3월 23일 개설

◇'불교와 문학' 카페.

△불교와 문학(http://cafe.daum.net/bulkoy)-불교에 접근하며 불교문학을 연구조사. 불교문학(시), 불교문학(소설), 불교 사찰, 불교의 인물, 작품 발표 등의 코너 개설. 3월 21일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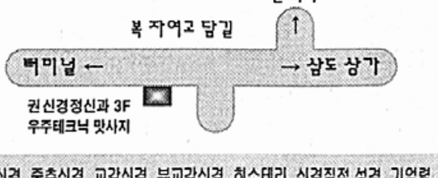
△불교만화동우회(http://cafe.daum.net/okbuddha)-불교만화를 통해 함께하는 마음을 담는 카페를 표방하고 개설한 곳이다. 교계 최초의 불교만화연구소를 개소하고 전국불교만화공모전을 개최했던 다일심 김선아 소장의 카페. 3월 19일 개설

△정토선재(http://www.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 · club_id=50115620)-정토회 청소년모임인 정토선재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 같은 곳. 3월 6일 개설

우주 테크닉 맛사지

오늘은 기분이 좋아 ~♪♪♪♪~♪♪♪
저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날아 갈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
오래전 부터 바라던 꿈이 이루어 질것 같아요
꽃들이 너무 예뻐요
이세상 너무 눈이 부셔요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두다 아름다워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
마음속 깊이 바라던 꿈이 이루어 질것 같아요

오래전 부터 지구가 여기 저기 파괴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체의 비밀은 자연에 있고 우주의 비밀은 사람 몸 속에 있습니다.
내몸이 밝아지면 가정은 물론 나라와 지구의 미래도 밝아 집니다.
지금 회로를 연결하러 오십시요.
자연과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 입니다.



자율신경 중추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히스테리 신경질적 성격 기억력 회복 기혈순환 치매예방 오십견 굽은등 자세교정 혈액순환 림프순환 기순환 만성피로 불면증 원인 모를 질병 신경순환 모든 순환 맛사지

우 330-130 충남 천안시 성황동 23-35

서규리 연구소 041)564-4999 041)564-4469

승복, 법복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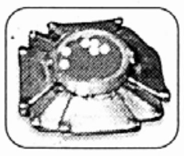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대웅전법당 적멸보궁 불사안내문



신도님 가정 불보살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암 불사를 비롯하여 많은 불사에 도와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성취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불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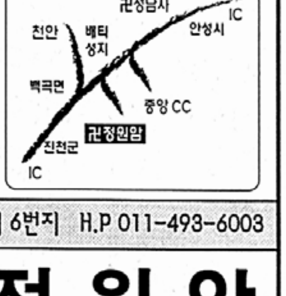
성취되는 부처님 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 수많은 신도님 인연과 작목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서는 부처님 진신 금강 광명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막속에서 지내게 되니 늘 황송한 마음이 들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적멸 보궁을 짓는데 될 수 있도록 많은 신도님께서 동참하시어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원암 대중일동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사동참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5-01-0040-958
● 한빛은행 334-293233-02-001
● 조흥은행 914-04-286470
※ 예금주 : 정원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번지 H.P 011-493-6003

卍 대한불교 조계종 정원암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